

'거포' 야스민 품은 페퍼스 '매운 맛' 무장

여자배구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지난 시즌 허리 부상 딛고 공격력 기대 기업은행 애버크롬비·인삼공사 밀라나 등 새얼굴 4명 한국 무대 도전

AI페퍼스가 야스민을 호명했다.
2023 한국배구연맹(KOVO) 여자부 7개 구단은 13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여자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를 했다.
여자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얻은 IBK기업은행이 '새 얼굴' 브리트리니 애버크롬비를 지명했다.
야스민 베다르트는 페퍼스 유니폼을 입게 됐다. 흥국생명엔 엘레나 브라제노비치(등록명 엘레나)와 재계약을 택해, 실제 드래프트에 나선 구단은 6개 팀이었다.
2022-2023시즌 성적 역순으로 구슬 확률 추첨을 했는데, 두 번째로 많은 구슬(30개)을 추첨기에 넣은 IBK기업은행이 지난 시즌 최하위 페퍼저축은행(구슬 35개)보다 먼저 지명권을 얻는 행운을 누렸다.
IBK기업은행은 키 191cm의 아포짓 스파이커 애

버크롬비를 선택했다.
애버크롬비는 지난 시즌 튀르키예 리그에서 뛰었다.
미국-푸에르토리코 이중 국적자인 애버크롬비는 국제대회에는 푸에르토리코 대표로 출전하고 있다.
2순위 지명권을 얻은 페퍼스 아현 김 감독의 선택은 야스민이었다.
야스민은 코로나19 여파로 조기 종료한 2021-2022 V리그 여자부에서 30경기에 출전해 674점을 올리며 현대건설의 해결사 역할을 했다.
그러나 2022-2023시즌에는 허리 부상 탓에 단 13경기(359득점)만 출전했다.
페퍼스는 '건강했을 때의 공격력'을 떠올리며 야스민을 택했다.
KGC인삼공사는 키 186cm의 아웃사이드 히터 조반나 밀라나(미국)를 지명했다.

밀라나는 지난 시즌 이탈리아 리그에서 뛰었다. 이번 트리아아웃에 참여한 선수 중 가장 공수 균형이 잘 갖춰진 선수로 평가받았다.
현대건설은 두 시즌 동안 GS칼텍스에서 뛰던 모마 바소코 레티치아(등록명 모마)를 선택했다. 모함 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둔 지명이었다.
GS칼텍스는 키 191cm의 아포짓 스파이커 지젤 시우바를 뽑았다.
쿠바 출신의 시우바는 최근까지 그리스 리그에서 활약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트리아아웃에 참여한 선수 중 가장 키(198cm)가 큰 아포짓 스파이커 반야 부키리치(세르비아)를 지명했다.
부키리치는 여자 배구 강호 세르비아 대표팀에서 활약한 이력이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드래프트'로 외국인 선수를 뽑았던 KOVO는 2019년(캐나다 토론토) 이후 4년 만에 국외에서 선수들의 기량을 직접 확인하는 '트리아아웃'을 열었다.
남자부에서는 V리그를 처음 경험하는 외국인 선수가 마테이 록(우리카드) 한 명뿐이었지만, 여자부에서는 새 얼굴 네 명이 등장했다. /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2023 한국배구연맹(KOVO) 여자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페퍼저축은행에 지명된 야스민(오른쪽)과 아현 김 페퍼저축은행 감독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재 5타차 뒤집고 '역전 우승' 막판 버디 2개 임진희 '우승샷'

3년 7개월 만에 국내 대회 출전...코리아נט우어 2개 대회 연속 우승

KLPGA NH투자증권 챔피언십...박지영 1타차로 따돌려

한국 남자골프의 간판 임성재가 3년 7개월 만에 출전한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코리아נט우어 대회에서 5타 차 열세를 극복하고 우승을 일궈냈다.
임성재는 14일 경기도 여주 페럼클럽(파72-7232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이글 하나와 버디 4개, 보기 2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10언더파 278타를 기록한 임성재는 2위 이준석(호주-9언더파 279타)을 한 타 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3억원이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하며 2승을 보유한 임성재는 국내 투어 대회에서는 2019년 10월 제네시스 챔피언십에 이어 두 번째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특히 임성재는 3년 7개월 만에 나선 대회에서 우승, 자신이 출전한 코리아נט우어 2개 대회 연속 우승도 달성했다.



임성재가 14일 경기도 여주 페럼클럽에서 열린 2023 KPGA 우리금융 챔피언십에서 최종합계 10언더파 278타를 기록해 우승했다. 사진은 임성재의 최종 라운드 경기 모습. /연합뉴스

임진희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통산 3승 고지에 올랐다.
임진희는 14일 경기도 용인시 수원 컨트리클럽 뉴코스(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8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3라운드 합계 15언더파 201타로 우승했다.
상금랭킹 1위 박지영을 1타 차로 제친 임진희는 시즌 첫 우승이자 지난해 7월 맥클-모나파코오픈 제패 이후 10개월 만에 정상에 올랐다.
2021년 BC카드-한경레이디스컵에서 생애 첫 우승을 따냈던 임진희는 3년 연속 우승을 신고했다.
우승 상금 1억4400만원을 받은 임진희는 상금랭킹 6위(2억815만원)으로 올라섰다.
공동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임진희는 7번 홀까지 버디 1개를 보기 1개로 맞바꾸면서 1타도 줄이지 못해 우승이 멀어지는 듯했다.



임진희가 14일 경기도 용인시 수원 컨트리클럽 뉴코스에서 열린 KLPGA 투어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아이 언샷하고 있다. /연합뉴스

12번 홀 두 번째 샷을 홀 3.2m에 떨어뜨린 뒤 이글 퍼트를 넣어 단숨에 한 타 차 공동 2위가 된 임성재는 13번 홀(파4)에서 홀에 바짝 붙이는 안벽한 두 번째 샷에 힘입어 버디를 뽑아내 공동 선두를 쫓았다. 이후 매치 플레이를 방불케 하는 팽팽한 분위기에 속해 공동 선두가 이어지다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 균형이 깨졌다.
이준석이 투혼에 성공한 뒤 임성재의 두 번째 샷은 그린 주변 벙커에 빠졌다.
임성재가 벙커샷을 홀 약 1.6m에 붙였고, 이준석은 이글 퍼트를 같은 방향으로 더 가까이 보냈다. 하지만 임성재가 먼저 버디 퍼트를 집어넣은 뒤 이준석의 버디 퍼트는 홀을 외면하며 승부가 갈렸다. 코리아נט우어 통산 3승을 노린 이준석은 준우승으로 시즌 최고 성적에 만족해야 했다. /연합뉴스

8번 홀(파5) 버디로 분위기를 바꾼 임진희는 11번 홀(파5)에서 1타를 줄여 겨우 가는 불씨를 살렸다.
지루한 파 행진 끝에 17번 홀(파5) 버디로 공동 선두로 뛰어오른 임진희는 18번 홀(파4)에서 3m 버디를 집어넣어 우승을 확정했다.
먼저 6타를 줄인 끝에 연장 승부를 기대하던 박지영은 2위(14언더파 202타)에 만족해야 했다.
박지영은 상금랭킹 1위를 지켰고 대상 포인트에서도 1위로 올라섰다.
290야드를 기쁘게 넘기는 장타를 앞세워 돌

풍의 주역으로 등장한 신인 방신실은 임진희와 달리 막판 2개 홀에서 내리 보기를 적어내 우승 기회를 놓쳤다.
1타차 선두까지 올랐던 방신실은 17번 홀(파5) 티샷이 왼쪽 숲으로 날리는 실수를 했다.
다섯번 만에 그린에 올라와 8m 보기 퍼트를 집어넣는 저력을 보였지만, 18번 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이 그린을 훌쩍 넘어가는 바람에 1타를 잃었다.
방신실은 데뷔전인 토크리스에프엔씨 KLPGA 챔피언십 공동4위에 이어 이번에는 공동3위(13언더파 203타)에 올라 슈퍼 루키 탄생을 예고했다.
이예원은 한때 2타차 선두에 나섰지만 14번 홀(파4) 3퍼트 보기 이후 더는 타수를 줄이지 못하고 공동3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2024파리올림픽 예선 북한 역도, 출전할 듯

징계 완료에 올림픽 복귀 추진

'역도 강국' 북한이 2024 파리하계올림픽 예선전에 출전할 예정이라고 올림픽 관련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매체 인사이드저게임즈가 14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코로나19의 자국 내 확산 방지를 이유로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하계올림픽에 불참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징계를 받은 북한이 올림픽 복귀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방증이자 관심이 쏠린다.
IOC는 2021년 9월, 도쿄올림픽에 일반적으로 불참한 북한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했다. IOC의 징계로 이 기간 북한은 어떠한 국제 대회에도 출전하지 못했다.
징계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자동 종료됐고, NOC 자격을 회복한 북한은 오는 9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파리하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인사이드저게임즈의 보도를 보면, 북한은 다음달 9~19일 파리올림픽 예선전을 겸해 쿠바 아바나에서 열리는 국제역도연맹(IWF) 그랑프리예 대표 선수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북한 역도는 3년 반만의 국제 대회 복귀 무대로 맹방인 쿠바에서 벌어지는 IWF 그랑프리예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역시 파리올림픽 예선전을 겸해 지난해 12월 콜롬비아에서 치러진 IWF 세계선수권대회와 13일에 진주에서 막을 내린 2023 아시아선수권대회는 건너뛰었다.
북한은 역대 하계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18개의 메달을 역대에서 수확했다.
최근에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여자 75kg급에서 림정심이 우승하는 등 올림픽 금메달 5개를 역대에서 캐냈고, 은메달 8개, 동메달 5개를 보냈다.
북한은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수단장 회의에 대표자를 파견하고 아시안게임 출전 준비에 들어갔다.
일본 교도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200명의 선수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1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2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3관	문재인입니다, 스트리머,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4관	드림
5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바람개비, 극장판 쟁구는 못말려: 동물소환 닌자 배꼽수비대
6관	드림
9관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문재인입니다, 극장판 쟁구는 못말려: 동물소환 닌자 배꼽수비대
7관 씨네키움	존 워 4, 유령지구2
8관 씨네키움	스즈메의 문단속, 칠중주: 흥풍 이야기, 리마운드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

일시 : 2023-05-04(목) ~ 2023-05-28(일)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11시 음악산책 '올 댓 러브 III 이종섭, 도쿄로 보낸 편지'

일시 : 2023-05-30(화) 오전 11시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6